



즉시 배포용: 2024년 7월 19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주가 주 전역의 가정에 무료 또는 저비용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털 운영 시작**

*주지사는 뉴욕주 보육 지원 프로그램에 주정부 및 연방 투자 18억 달러 확보*

*프로그램에 따라 대부분의 지원 대상 가정의 시장 가격 보육 비용 90 퍼센트를 보장하고, 이에 따라 더욱 많은 4인 가정이 주당 15 달러 이하를 보육 비용으로 지출*

*현재 주 전역에서 100,000 가구, 수십만 명 이상의 가족이 신청 대상에 포함*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Kirsten Gillibrand 미 상원의원과 올버니 Club Fed Child Care Center에서 [ny.gov/childcare](https://ny.gov/childcare)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뉴욕주의 보육 지원 프로그램(Child Care Assistance Program, CCAP)을 통해 주 전역의 지원 대상 가족들이 무료 또는 저비용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포털입니다. Hochul 주지사가 회계연도 2025 제정 예산에서 보육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주정부 및 연방 투자 18억 달러를 확보해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 전역에서 더욱 많은 가족에게 무료 또는 저비용 보육을 지원하고 온라인으로 쉽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뉴욕 경제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주지사가 된 첫 번째 케이스로서, 저는 보육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부모와 자녀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욕주의 새로운 디지털 포털을 통해 주 전역의 가족들이 보육 지원 프로그램(CCAP)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상 가정의 주당 시장 가격 보육 비용의 90 퍼센트를 보장합니다. 이것은 지원 대상 가정이 4인 가구일 경우, 주당 보육 비용 지출이

15 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연간 보육 비용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CCAP는 이미 주 전역의 100,000 가정에 무료 또는 저비용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부 추산에 따르면, 주 전역에서 수십만 가정이 CCAP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Hochul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의 신청을 독려합니다.

CCAP는 주정부 프로그램으로 뉴욕주 전역의 근로자 가정의 보육 비용을 지원합니다. 자격 요건은 수입 및 가구 규모 등 다수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지만, 가구 수입이 주 중간 소득(State Median Income) 85 퍼센트 이하인 경우 많은 가정이 CCAP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4인 가구의 경우, 주 중간 소득의 85 퍼센트인 소득은 약 108,000 달러입니다.

과거 뉴욕시와 스키벡터디의 가정에서만 온라인으로 CCAP 신청을 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종이 문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뉴욕주의 새로운 디지털 포털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주 전역의 가정은 지원 대상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 대상인 경우 무료 또는 저비용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가정이 CCAP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 자격이 있는 수십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포털은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사무국(New York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의 감독을 받습니다. 격을 사전 심사하고 양육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하는 온라인 툴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정을 중복으로 진행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뉴욕시와 스키벡터디 카운티 외의 가족들도 새로운 디지털 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신청 대상 가족들은 [MyCity 포털](#)을 통해 CCAP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스키벡터디에 거주하는 신청 대상 가족은 반드시 [스키벡터디 카운티 포털](#)을 통해 CCAP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가족이 뉴욕주의 새로운 디지털 포털을 통해 신청하려 한다면, 다시 적합한 지역 포털로 이동하게 됩니다.

CCAP는 지역사회보상서비스국이 운영하고 OCFS가 감독합니다. 서비스 운영 시작의 일환으로 OCFS는 다수의 이해관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CCAP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부모가 된 사람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가족들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OCFS** 커미셔너인 **DaMia Harris-Madde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지사를 비롯한 지역 사회보장서비스국과 함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는 보육 지원을 신청하려는 가족들이 겪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온라인 포털은 신청 과정을 간소화하고 프로그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더욱 많은 가족들이 양질의 적정가격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뉴욕 주민들이 현재 보육 지원 대상입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주 중간 소득인 85 퍼센트에 해당하는 108,631.70 달러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Charles Schumer 상원 여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포털의 운영을 시작하면서 뉴욕은 주 전역의 더욱 많은 가족들이 적정가격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노력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적정가격 보육 접근성 개선은 우리가 노동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며 미래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추후 보육 연방 예산에서 10억 달러를 확보하고 보육 안정화법(Child Care Stabilization Act)을 도입한 이유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뉴욕 전역의 가족들이 더욱 쉽게 무료 또는 저비용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는 모든 사람이 적정가격으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와 함께 싸울 것입니다.”

**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신뢰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불필요한 어려움 없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육 지원 프로그램의 새로운 온라인 포털은 주 전역에서 부모들의 삶을 바꿔놓을 혁신적인 조치이며, 필요한 가족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적인 발표를 Hochul 주지사와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주 전역에서 보육을 확대하려는 주지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더욱 많은 가족들이 보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연방 수준에서 뉴욕, 전국의 보육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Joe Morelle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정가격 보육 접근성 확대는 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강력한 경제와 노동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육 지원 프로그램은 이미 뉴욕주의 많은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번 투자로 프로그램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문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워싱턴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여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원 여당은 보육 지원 프로그램의 소득 조건을 완화하여 접근성을 확대하고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돕는 등 노동자 가정을 위한 보육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육 디지털 포털의 운영이 시작되어 보육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족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뉴욕주에서 더욱 많은 가족이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Carl Heastie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적정가격 보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무료 및 저비용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잘 되어야 뉴욕주도 발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 파트너와

협력하여 뉴욕이 가족을 우선으로 하는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회계연도 2025 제정 예산은 Hochul 주지사가 4년에 걸쳐 보육 접근성을 확대하고 뉴욕 가족의 적정가격성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7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어갑니다. CCAP 지원에 대한 18억 달러 투자를 비롯해 가정 기반 보육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원과 도움을 주는 Family Child Care Networks 파일럿에 대한 운영 자금 500만 달러 투자, 전국적 보육 기준을 충족하거나 노숙 가정을 지원하거나 비전통적 시간에 운영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세종자에 대한 차등 지원 설정 등의 투자가 또한 포함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http://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